해외금융연구소 · OFFSHORE FINANCE LAB

# 공부하지 않아도
# 알아서 불려주고 지켜주는
# 글로벌 복리시스템

**10년마다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
글로벌 유배당 저축의 비밀

『한국인의 금융 엑시트』 저자

자산 디자이너 **최익진** 지음

v1.0 · 2026

COPYRIGHT & CONTACT

# 저작권 안내 및 공식 소통 채널

무단 배포를 금지하며, 궁금하신 점은 아래 공식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해외금융연구소 공식 소통 채널

**[비공개 공부방] 실시간 글로벌 금융 오픈채팅방**

전자책 질의응답 및 매일 업데이트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인사이트

https://joo.is/비공개-공부방

**[공식 안내센터] 해외금융연구소 통합 링크트리**

1:1 카카오톡 상담, 네이버 블로그 심층 칼럼, 단행본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https://joo.is/해.금.연-독자

BEFORE YOU READ

#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 네 가지가 남습니다

40여 페이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01** **은행 예·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왜 자산이 평생 두 배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있었던 '다른 길'의 정체

**02** **수백 개 글로벌 금융사 중 단 1%만 통과하는 5가지 검증 기준**
내 돈과 아이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회사를 골라내는 잣대

**03** **홍콩에 가지 않고, 영어 한마디 없이, 방구석에서 끝내는 세팅 절차**
비행기 표도 통역도 필요 없는 실제 진행 순서

**04** **11년 차 금융인이 6개 글로벌 본사를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한 것**
광고 문구가 아니라 공시 자료와 배당 이행 기록으로 검증한 결과

해외투자연구소

> 이 책은 **순서대로 읽도록** 설계했습니다. 중간을 건너뛰면 마지막 장의 결론이 절반만 이해됩니다.

**투자 공부에 쏟을 시간은 부족하지만 자산은 안전하게 불리고 싶고,**
**가족과의 시간, 여가생활도 누리고 싶으신가요?**

이 전자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서 불려주고 지켜주는 글로벌 복리시스템**

하루 종일 불안하게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는 구조. 그동안 일부 자산가들만 누려왔던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가감 없이 공개합니다.

##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자 최익진



『한국인의 금융 엑시트』 북콘서트 현장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권유대행인/퇴직연금 모집인 등 금융업에 11년 차 종사하고 있고 현재는 국내외 금융제도를 활용하여 많은 분들의 목돈 마련과 든든한 노후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 자산 디자이너 최익진입니다.

작년에는 해외금융(홍콩보험) 이야기를 담은 저서 **『한국인의 금융 엑시트』**를 출간하며 북콘서트를 통해 많은 독자분들을 만났고, 현재는 **『밀리의 서재』**에서도 제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년 차 금융인이자 책을 쓴 저 역시,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소중한 돈 역시 오랫동안 '은행 예·적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 **"돈은 무조건 은행에 넣어야 안전하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었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은행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도, 코인도, 결국 다시 예·적금

물론 저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식, 펀드, 코인까지 수익이 난다는 곳에 남들처럼 발을 담가보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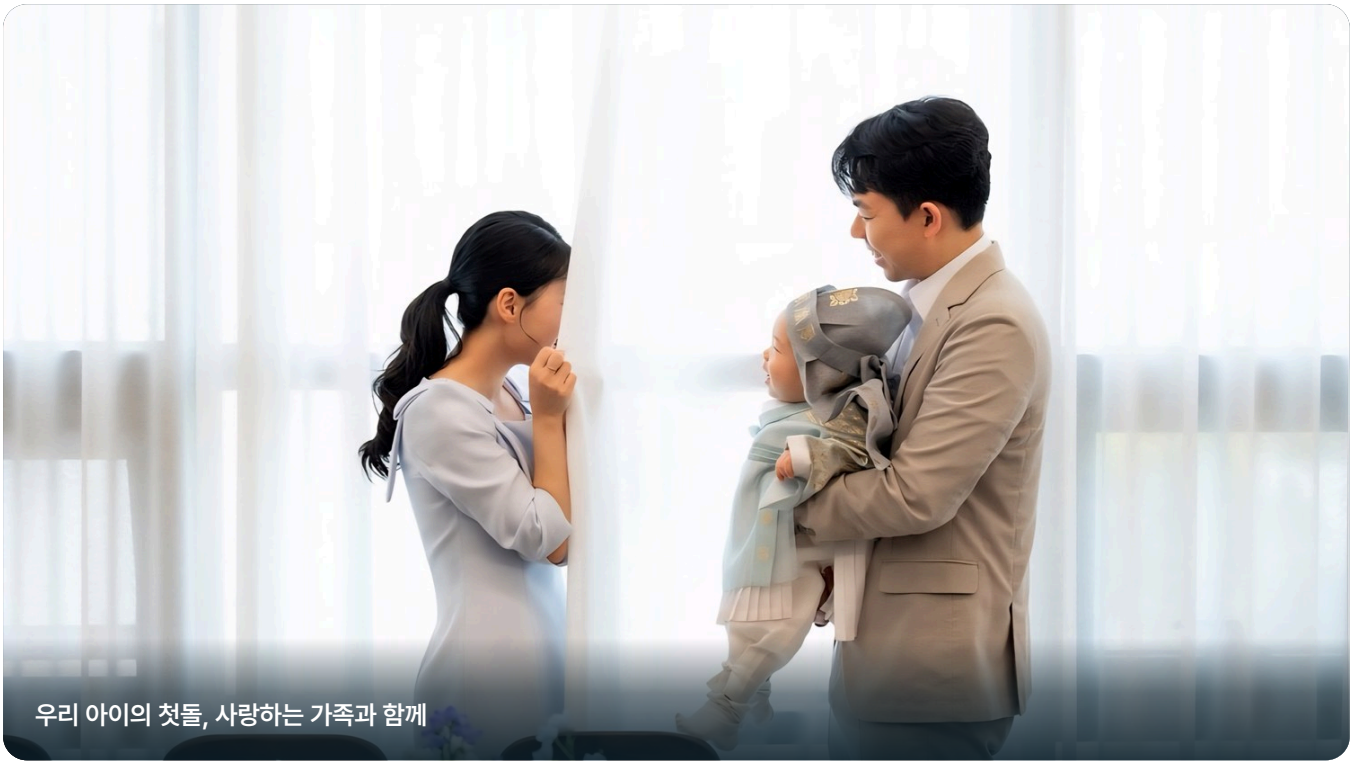
하지만 명확한 투자 원칙 없이 주변 이야기만 듣고 사고팔기를 반복하다 보니, 남은 것은 쓰라린 손실과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결국 제 돈은 다시 익숙한 은행 예·적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편했고, 익숙했고, 최소한 원금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 아빠가 되면서 시작된 서늘한 고민

해외금융연구소

평생 안전하게만 살면 될 줄 알았던 제 생각을 송두리째 바꾼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첫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첫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벅찬 행복과 함께 가장으로서의 서늘한 현실감이 엄습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양육비와 학자금,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나의 은퇴와 노후 준비...

> **"이대로 은행이자 2%대에 돈을 묶어두는 것만으로, 정말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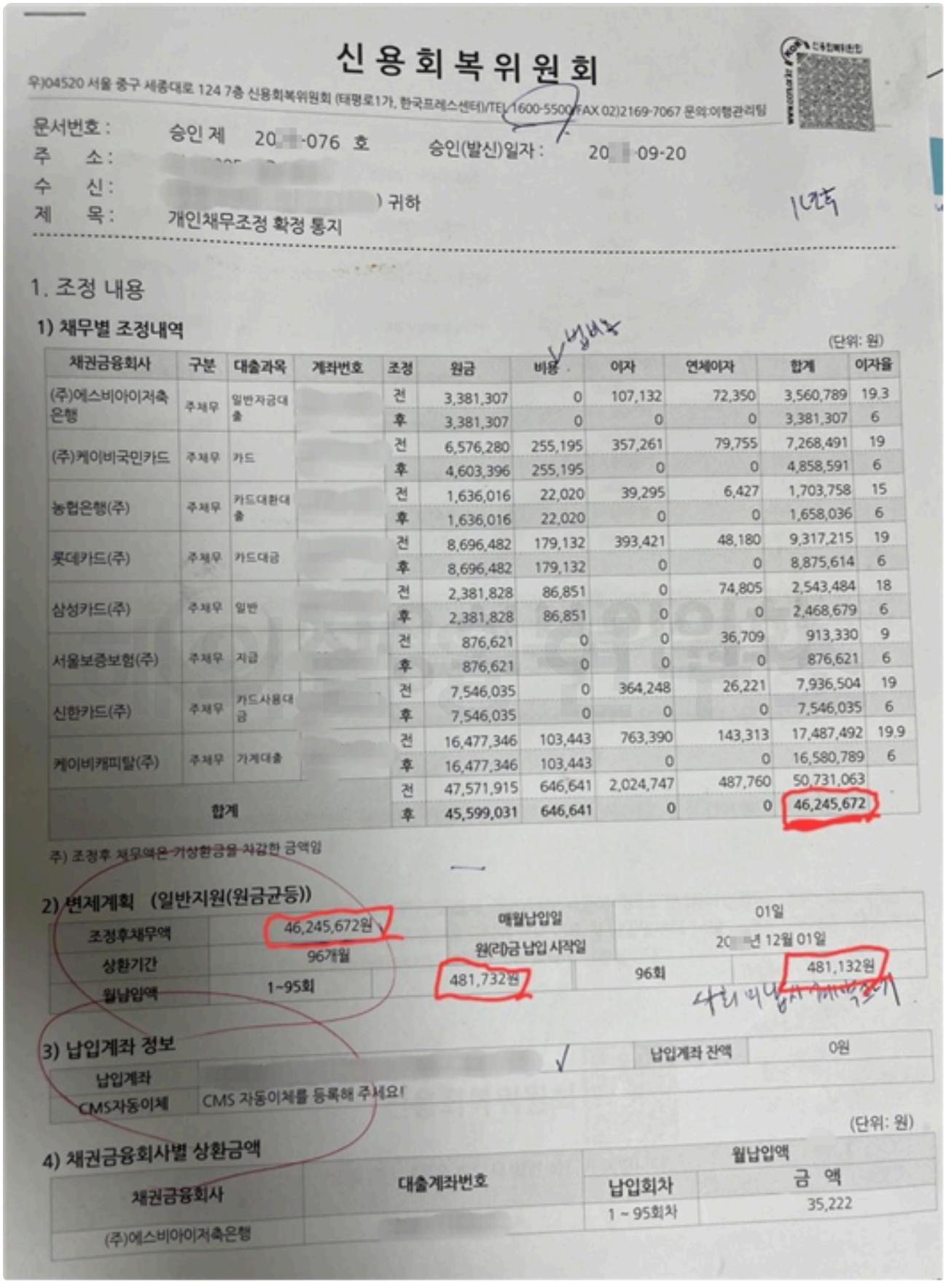
치솟는 물가를 은행 금리가 따라가지 못하니, 돈을 안전하게 지킨다고 은행에 넣어둔 것이 실질적으로는 내 자산의 가치를 매년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 가장 가까운 절친의 파산 위기, 빚투의 서늘한 결말

은행 밖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투자처를 치열하게 고민하던 무렵, 제 인생관을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고위험 파생상품(선물) 투자에 손을 댔던 가장 친한 친구가 거액의 빚을 떠안고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 친구는 현재까지도 아래 통지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매달 수십만 원씩, 지금도 피눈물 나는 채무를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금융연구소



# 신 용 회 복 위 원 회

우)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7층 신용회복위원회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TEL 1600-5500/FAX 02)2169-7067 문의:이행관리팀

문서번호 : 승인 제 20 -076 호 승인(발신)일자 : 20 09-20

주 소 :

수 신 : ) 귀하

제 목 :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

## 1. 조정 내용

### 1) 채무별 조정내역

(단위: 원)

| 채권금융회사 | 구분 | 대출과목 | 계좌번호 | 조정 | 원금 | 비용 | 이자 | 연체이자 | 합계 | 이자율 |
|---|---|---|---|---|---|---|---|---|---|---|
|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 | 주채무 | 일반자금대출 | | 전 | 3,381,307 | 0 | 107,132 | 72,350 | 3,560,789 | 19.3 |
| | | | | 후 | 3,381,307 | 0 | 0 | 0 | 3,381,307 | 6 |
| (주)케이비국민카드 | 주채무 | 카드 | | 전 | 6,576,280 | 255,195 | 357,261 | 79,755 | 7,268,491 | 19 |
| | | | | 후 | 4,603,396 | 255,195 | 0 | 0 | 4,858,591 | 6 |
| 농협은행(주) | 주채무 | 카드대환대출 | | 전 | 1,636,016 | 22,020 | 39,295 | 6,427 | 1,703,758 | 15 |
| | | | | 후 | 1,636,016 | 22,020 | 0 | 0 | 1,658,036 | 6 |
| 롯데카드(주) | 주채무 | 카드대금 | | 전 | 8,696,482 | 179,132 | 393,421 | 48,180 | 9,317,215 | 19 |
| | | | | 후 | 8,696,482 | 179,132 | 0 | 0 | 8,875,614 | 6 |
| 삼성카드(주) | 주채무 | 일반 | | 전 | 2,381,828 | 86,851 | 0 | 74,805 | 2,543,484 | 18 |
| | | | | 후 | 2,381,828 | 86,851 | 0 | 0 | 2,468,679 | 6 |
| 서울보증보험(주) | 주채무 | 지급 | | 전 | 876,621 | 0 | 0 | 36,709 | 913,330 | 9 |
| | | | | 후 | 876,621 | 0 | 0 | 0 | 876,621 | 6 |
| 신한카드(주) | 주채무 | 카드사용대금 | | 전 | 7,546,035 | 0 | 364,248 | 26,221 | 7,936,504 | 19 |
| | | | | 후 | 7,546,035 | 0 | 0 | 0 | 7,546,035 | 6 |
| 케이비캐피탈(주) | 주채무 | 가계대출 | | 전 | 16,477,346 | 103,443 | 763,390 | 143,313 | 17,487,492 | 19.9 |
| | | | | 후 | 16,477,346 | 103,443 | 0 | 0 | 16,580,789 | 6 |
| 합계 | | | | 전 | 47,571,915 | 646,641 | 2,024,747 | 487,760 | 50,731,063 | |
| | | | | 후 | 45,599,031 | 646,641 | 0 | 0 | 46,245,672 | |

주) 조정후 채무액은 거상환금을 차감한 금액임

### 2) 변제계획 (일반지원(원금균등))

| | | | | | |
|---|---|---|---|---|---|
| 조정후채무액 | 46,245,672원 | 매월납입일 | 01일 | | |
| 상환기간 | 96개월 | 원(리)금 납입 시작일 | 20 년 12월 01일 | | |
| 월납입액 | 1~95회 | 481,732원 | 96회 | 481,132원 | |

### 3) 납입계좌 정보

| | | | |
|---|---|---|---|
| 납입계좌 | | 납입계좌 잔액 | 0원 |
| CMS자동이체 | CMS 자동이체를 등록해 주세요! | | |

### 4) 채권금융회사별 상환금액

(단위: 원)

| 채권금융회사 | 대출계좌번호 | 월납입액 | |
|---|---|---|---|
| | | 납입회차 | 금 액 |
| (주)에스비아이저축은행 | | 1 ~ 95회차 | 35,222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변제 통지서

4,600만원 2주

친구의 절망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 **"피 같은 내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는 방법은 정말 세상에 없는 걸까?"**

## 국내 모든 금융상품을 뒤졌지만,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금융업 종사자로서 국내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ELS, 변액보험 등)을 샅샅이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법칙을 벗어나는 상품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안전성을 택하면 물가상승률도 못 미치는 쥐꼬리만 한 이자뿐이었고,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 들면 어김없이 '원금 손실의 덫'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에는 '안전하면서도 복리로 잘 불어나는 진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확인한 채, 깊은 무력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해외금융연구소

## 인생을 뒤바꾼 한 번의 세미나!

무력감 속에 일상을 살아가던 중,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한 금융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금융업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금융 상식을 완벽하게 뒤흔드는 이야기였습니다.

## "투자 공부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잘해서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다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삼십 평생을 은행에만 돈을 묻어두었던 저로서는, 아내와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장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언제나 '원금을 지키는 안전성'이 1순위였고, 수익성은 그다음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는 믿기 힘든 금융 구조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 **'원금의 안전성'과 '연 6~7%대 복리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갖춘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굳이 부자가 되기 위해 복잡한 재무제표를 공부하지 않아도, 일상을 팽개치고 매일 주가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복리 시스템에 자산을 편승시키고 시간의 힘을 빌리기만 하면, 매년 6~7% 복리로 자산이 차곡차곡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 하지만 기대 뒤에 찾아온 차가운 의심

하지만 강연장을 나오며 머릿속에는 거센 의심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해외금융연구소

**" 요즘 같은 저금리·고변동성 시대에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 단지 그럴듯하게 포장된 마케팅이나 각본은 아닐까?**

**" 국내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왜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을까?**

가슴은 뛰었지만, 소중한 가족의 미래가 걸린 돈이었기에 섣부른 확신 대신 차가운 의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 **"남의 말만 믿지 말고,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내 손으로 약관을 뜯어보고 현장을 직접 검증하기 전까지는 절대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문 공시자료와 배당 기록을 샅샅이 파헤쳤고, 마침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글로벌 복리 시스템의 진짜 비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부터 그 진짜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제가 1년 넘게 발로 뛰며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글로벌 복리 시스템의 진짜 구조를 하나씩 공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 전자책이 '어떤 분들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겠습니다. 만약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조용히 창을 닫아주셔도 좋습니다.

**× 이런 분들은 이 책을 읽지 마세요**

- 원금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원하는 분
- 매일 주식 창을 보며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체질에 맞는 분
- 연 20~30% 이상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고수익만 좇는 분
- '원금의 안전성'보다 '단기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한 분

**○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으세요**

- 평생 예·적금만 해왔고, 원금 손실이 두려워 다른 투자는 망설였던 분
- 주식이나 코인으로 뼈아픈 손실을 겪고 안전한 대안을 찾고 계신 분
- 피 같은 내 종잣돈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고 싶은 분
- 가족과의 일상과 본업을 지키면서, 든든한 평생 현금흐름을 준비하고 싶은 분

해외금융연구소

###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대한민국에는 사라졌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200년 넘게 작동해 온 첫 번째 시크릿의 문을 열겠습니다.

SECRET 01

#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 배당받는 복리 시스템

대체 어디서부터 이 복리 시스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의심 많던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아시아 금융의 심장부'라 불리는 홍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홍콩'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 역시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영화 <영웅본색>의 화려한 야경과 딤섬, 쇼핑이 전부인 관광도시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 마주한 홍콩은 제가 알던 곳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빅토리아 하버를 둘러싼 홍콩 금융가 스카이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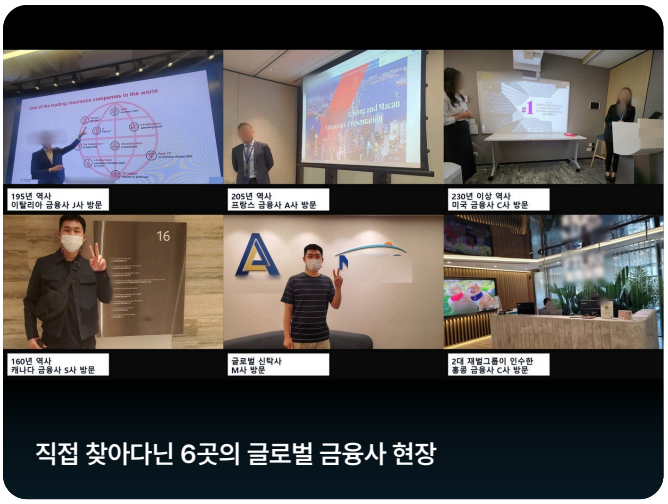
빅토리아 하버를 둘러싸고 하늘 높이 솟아있는 저 웅장한 빌딩들이 어떤 건물인지 아시나요? 화려한 호텔이나 쇼핑몰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세계적인 보험사와 글로벌 은행들의 본사 건물입니다.

홍콩은 전체 면적이 서울보다 작고 인구도 적지만, **160여 개의 글로벌 보험사와 200여 개의 글로벌 은행**이 밀집해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3대 금융허브'였습니다.

##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발로 뛰며 검증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인터넷만 뒤지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 본사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내에도 진출해 있는 200년 역사의 프랑스 A사, 미국 S&P500 편입 금융사인 C사, 유럽 최대 규모의 이탈리아 G사는 물론이고, 160년 전통의 캐나다 보험사, 글로벌 신탁사인 M사, 그리고 홍콩 최대 재벌그룹 계열 금융사까지 수많은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직접 찾아다닌 6곳의 글로벌 금융사 현장


현지 VIP 고객 라운지

각 금융사의 고위 관계자 및 계리사들과 마주 앉아 제가 품고 있던 의구심들을 하나하나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 **"전쟁이나 경제위기가 와도 어떻게 고객의 배당을 약속대로 지급해 왔는가?**
>
> **"150년, 2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회사의 재정 건전성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해외금융연구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공시 보고서와 실제 배당이행 기록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한 뒤, 마침내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이건 허황된 마케팅이 아니다. 이미 200년 전부터 전 세계 자산가들이 당연하게 누려온 '검증된 시스템'이다."**

## 상위 1% 자산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콩 현지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충격은, 대한민국의 고액 자산가, 기업오너, 그리고 정보가 가장 빠른 전문직(의사, 변호사) 분들이 꽤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을 당연하다는 듯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업, 주식 등으로 큰돈을 번 부자들은 자신이 피땀 흘려 일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글로벌 복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해외로 이전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경제위기가 와도 자산을 지키며 불려 나갈 '안전 금고'를 해외에 만들어 둔 것이었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한편으로는 뼈저리게 자책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내 눈으로 확인해서 천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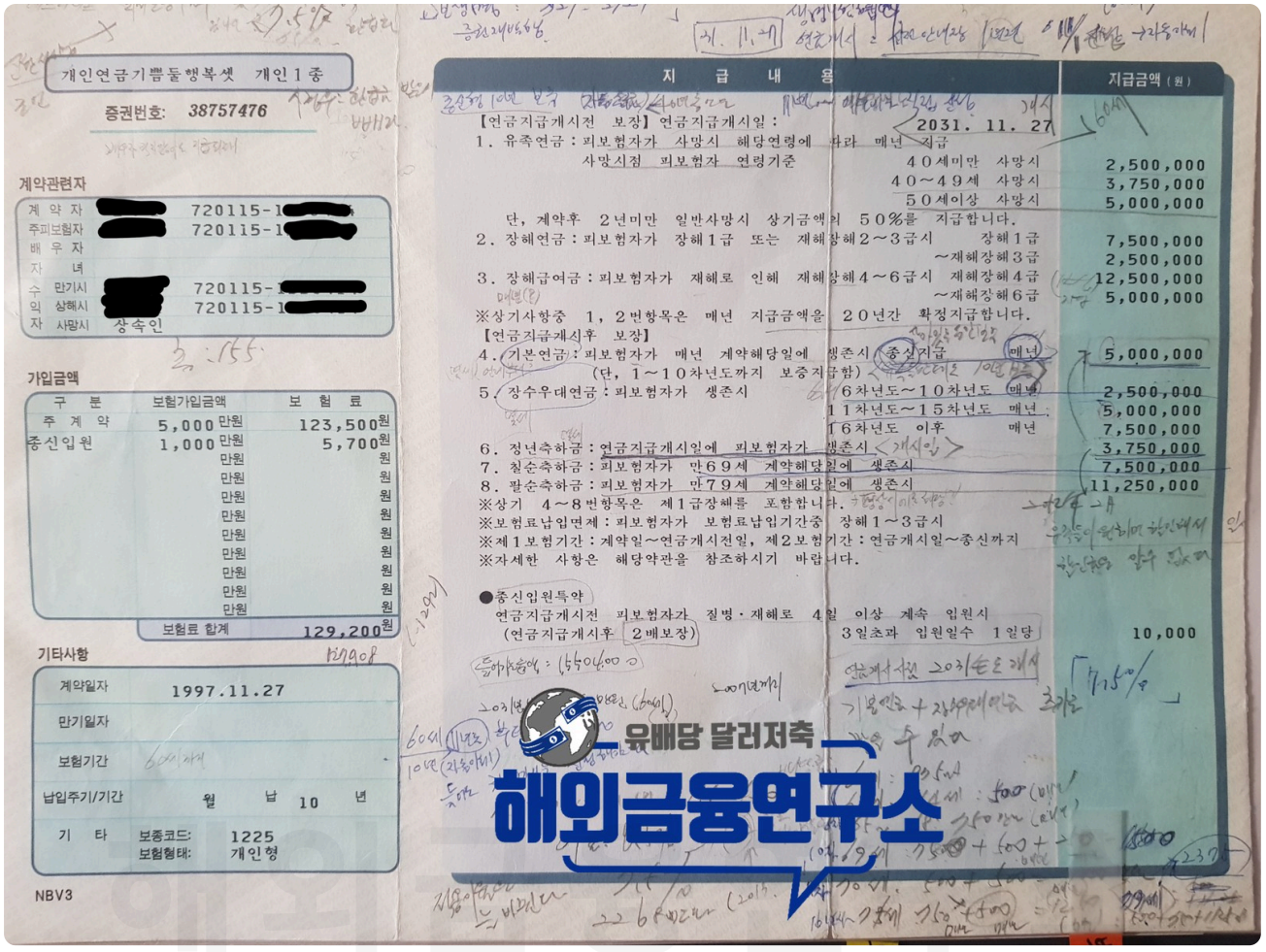
> **"왜 평범한 한국 사람들은 이 엄청난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을까?**
>
> **"정말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과거에도 아예 없었던 걸까?**

집요한 궁금증 끝에 과거 대한민국의 금융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고, 마침내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 충격적이지만, 실화입니다: 1997년 한국의 실제 증서

놀랍게도, 과거 대한민국에도 이와 똑같은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해외금융연구소




1997년 11월 27일 가입한 실제 계약 증서 (당시 25세 남성)

REAL DOCUMENT · 1997

### 1997년 실제 가입 증서 — 연금 수령 구조

월 13만원씩 10년간 총 1,550만원 납입 · 60세부터 100세까지 연금 수령

| 수령 구간 | 연간 수령액 |
|---|---|
| 60세 ~ 64세 | 매년 500만원 |
| 65세 ~ 69세 | 매년 750만원 |
| 70세 ~ 74세 | 매년 1,000만원 |
| 75세 ~ 100세 | 매년 1,250만원 |
| 정년·칠순·팔순 축하금 합계 | 2,250만원 |
| **100세까지 총수령액** | **4억 6,000만원 이상** |

해외금융연구소

> 원금(1,550만원) 대비 **28배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이런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우리 세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 도대체 이 기적 같은 상품은 왜 한국에서 사라졌을까요?

답은 바로 '유배당(有配當)'과 '무배당(無配當)'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원리만 이해하면, 왜 글로벌 시스템이 지금도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이 완벽한 제도가 종적을 감췄는지 한눈에 알게 됩니다.

INFOGRAPHIC 01

## 유배당 vs 무배당 — 운용 수익, 누구 몫인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굴려 낸 운용 수익의 배분 구조

### 유배당 (글로벌 표준)




고객 90% 회사 10%

### 무배당 (현재 한국)




회사 100%

> 유배당은 발생한 운용 수익의 **약 90%를 고객에게**, 나머지 10%만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무배당은 자산을 아무리 잘 굴려도 수익의 100%를 보험사가 가져가고, 고객은 처음 약정된 이자만 받습니다.

해외금융연구소

쉽게 말해, 무배당이 약속된 이자만 쥐여주고 끝나는 '단순 예금'이라면, 유배당은 '원금 보장 + 회사의 성과를 90% 나눠 갖는 보너스 파트너십'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보장성, 저축·연금 상품은 **100% '무배당'**입니다. 자산을 아무리 잘 굴려 수조 원의 흑자가 나도 수익의 100%는 보험사가 독식하고, 고객은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정해진 적은 이자만 받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에게 그토록 유리했던 유배당 상품은 왜 사라졌을까요?

INFOGRAPHIC 02

### 1997년 IMF 외환위기와 유배당 단종

한국 보험시장에서 유배당 상품이 사라지기까지

**1997년 이전**

두 자릿수 고금리 시대.
보험사들이 유배당을
펑펑 약속하며 가입 유치

**1997 IMF 외환위기**

저금리 시대로 급전환.
약속한 고배당을 감당 못해
'역마진' 공포 확산

**2000년~**

유배당 상품 전면 단종.
회사가 수익을 독식하는
무배당 상품만 남음

>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혜택이었지만, 좁은 내수 시장에 갇힌 한국 보험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 그 결과 우리 세대는 '배당받는 복리'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 하지만 200년 역사의 글로벌 금융선진국은 달랐습니다

해외금융연구소

한국 보험사들은 좁은 국내 시장에 갇혀 역마진을 버티지 못하고 제도를 폐지했지만, 미국, 영국, 홍콩,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같은 글로벌 금융강국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대전과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도, 전 세계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독보적인 운용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객에게 매년 따박따박 복리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5년 전에 사라진 기적의 시스템이, 바다 건너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도 굳건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 저도 제 돈으로 직접 가입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11년 차 금융인인 저조차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

**"국내 은행·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다고?**

수십 번을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글로벌 본사 담당자에게 팩트를 재확인했으며, 홍콩 현지 본사를 찾아가 시스템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증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100년 넘게 전 세계 자산가들이 누려온 실제 금융 시스템이다."**

그 확신이 들었기에, 저 역시 제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직접 가입하여 매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입한 글로벌 유배당 저축플랜의 실제 설계표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실제 가입 설계표

### 글로벌 유배당 저축 플랜

환율 1,500원 가정 · 저자 실제 가입 내역

| 약정 연 납입금액 | 프로모션 실 납입금액 |
| --- | --- |
| **$12,000 (약 1,800만원)** | **$10,560 (약 1,580만원)** |
| 총 납입기간 | 최종 보장 만기 |
| **단 5년 (완전 거치)** | **120세 (대물림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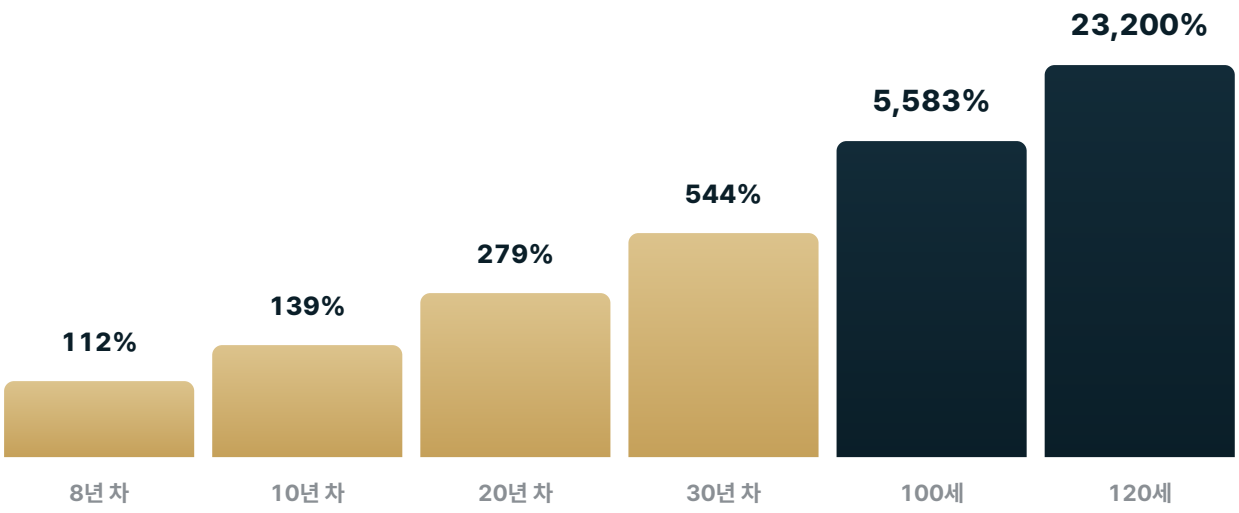
해외금융연구소

5년간 연납 보험료의 12%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매달 20~30년씩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딱 5년만 납입하고 완전히 손을 뗀다'**는 점,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가 아니라 **'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USD)'**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INFOGRAPHIC 03

## 납입 원금 대비 실질 환급률

5년 납입 완료 후, 거치만으로 불어나는 복리 배당 곡선




8년 차에 원금 100%를 회수하고 수익 구간에 진입하며(112%), 100세 시점엔 원금의 약 55배(5,583%), 120세까지 유지 시 원금의 약 232배(23,200%)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연 6.8% 복리를 85년 적용하면 정확히 이 배수가 나오는, **과장이 아닌 복리 계산의 결과**입니다.

※ 저자 실제 설계표 기준 예시 수치이며, 실제 배당률은 매년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100세에 55배? 120세에 232배라고요? 사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생각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내가 120세까지 오래 살아서 혼자 다 쓰라는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은퇴한 뒤 노후 생활비로 매년 풍족하게 인출해 쓰고도, 남은 원금이 죽지 않고 스스로 복리로 증식하여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까지 세대 이전(상속·증여)되는 **'영구 자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 왜 지금까지 우리의 자산은 제자리걸음이었을까요?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만 묶어두었습니다. 은행 이자 2~3%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이고 나면, 연 3~4%씩 치솟는 실질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합니다. 통장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의 '실질 구매력'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자산가들은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내가 일하는 동안 내 돈도 세계 1위 통화(달러)로, 글로벌 우량 자산의 복리 시스템 속에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 단, 절대로 아무 금융사나 덜컥 선택해선 안 됩니다!

수익률과 복리 숫자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금융사에 소중한 돈을 맡겼다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는 수백 개가 넘는 금융사와 보험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회사를 믿고 나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맡겨야 할까요?

해외금융연구소

### 단 1%만을 걸러낸 절대 불변의 5가지 검증 기준

11년 차 금융인으로서 제 가족의 자산을 맡기기 위해, 수백 개 글로벌 금융사 중 단 1%만을 철저하게 걸러낸 검증 기준을 다음 장에서 명쾌하게 공개합니다.

SECRET 02

# 믿고 맡길 수 있는 글로벌 금융사 선정 5가지 기준

내 소중한 돈, 그리고 아이의 미래가 걸린 자산입니다. 수백 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사 중 단 1%를 엄격하게 걸러낸 '5가지 불변의 검증 기준'을 공개합니다.

## 1 200년간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생존과 약속의 역사'



200년 역사의 프랑스 글로벌 금융사 A사, 세미나 방문 현장에서

처음 해외 금융사를 접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설립 연도였습니다.

해외금융연구소

> **"160년, 180년, 길게는 230년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류 역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1차·제2차 세계대전, 1929년 미국 대공황, 두 차례의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전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수많은 국가와 은행들이 파산하던 참혹한 위기들을 전부 정면으로 관통해 온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저 버티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금융위기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고객과의 약속(배당 지급과 원금 보장)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수백 년간 온갖 위기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다져진 '위기관리 시스템'과 '장기 리스크 통제 노하우'가 뼈속까지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을 대표하는 1위 생명사도 역사로 보면 이제 70년 남짓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성장한 훌륭한 기업이지만,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사적 파도를 이겨내며 약속을 지켜온 글로벌 금융사의 역사적 무게와 리스크 관리 깊이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차이가 납니다.

>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위기가 와도 내 돈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체력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 정도 역사와 시스템을 가진 곳이어야만 내 은퇴자금은 물론, 아이의 미래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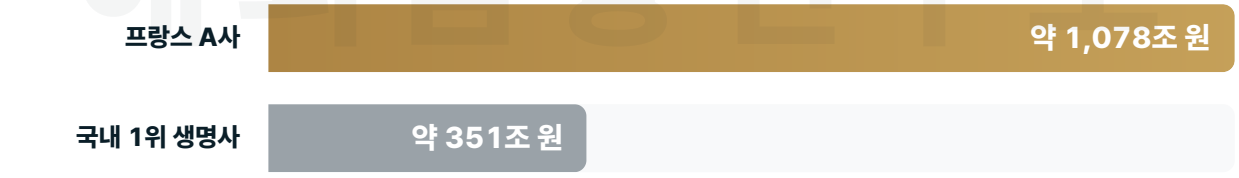
## 2 돈을 안전하게 불려주는 엔진, '압도적 자산운용 규모'

INFOGRAPHIC 04

### 그룹 총자산 비교 — A사 vs 국내 1위 생명사

2025년 12월 31일 기준

해외금융연구소




> 프랑스 A사 한 곳의 그룹 총자산은 약 **1,078조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1위 생명보험사(약 351조 원)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200년 넘게 쌓아온 신뢰와 운용 실력이 만든 격차입니다.

※ A사 2025년 연차보고서 연결재무상태표 총자산 €635.5bn 기준(ECB 기준환율 적용) · 국내사는 2025년 말 연결 자산총계

'자산이 얼마나 많냐'는 단순한 스펙 자랑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수천만 고객이 검증한 신뢰의 총량'**입니다. 천문학적인 자산은 하루아침에 모이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 세계 고객들에게 약속한 수익과 배당을 성실히 돌려주었기에 쌓일 수 있었던 '시간과 신뢰의 결과물'입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만드는 압도적 투자 경쟁력'**입니다. 자산 규모가 수백조, 수천조 원에 이르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질(Quality)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이나 몸집이 작은 금융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글로벌 국가 기반 인프라, 전 세계 우량 국채, 탑티어 사모펀드(PEF) 등에 초대형 단위로 분산투자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극단적으로 낮추면서도, 연 6~7%대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장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분산투자 엔진'이 바로 이 거대한 자산 규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빨리 버는 회사보다, 평생 안전하게 굴려줄 회사를 골라야 합니다."**

## 3 이름값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글로벌 브랜드 파워'

INFOGRAPHIC 05

### 세계 100대 브랜드 중, 보험사는 단 두 곳뿐입니다

Interbrand Best Global Brands 2025

해외금융연구소

| 순위 | 브랜드 | 브랜드 가치 |
|---|---|---|
| 1위 | 애플 | 4,709억 달러 |
| 2위 | 마이크로소프트 | 3,885억 달러 |
| 7위 | 코카콜라 | 601억 달러 |
| 27위 | 보험 브랜드 1위 (독일계) | 282억 달러 |
| **43위** | **프랑스 A사** 보험 2위 | **183억 달러** |
| — | 국내 금융사 | 100위권 밖 |

100위 안에 이름을 올린 보험사는 위 두 곳이 전부입니다. A사는 2024년 48위에서 2025년 **43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금융사는 아직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 Interbrand Best Global Brands 2025 (2025년 10월 발표)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순위 높은 게 내 돈 불려주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금융의 본질을 깊이 파고들수록 깨달았습니다.

세계적인 평가기관(Interbrand 등)이 매년 매기는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결코 단순한 TV 광고나 인지도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백 년 넘게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과 쌓아온 '신뢰의 시가총액'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같은 세계 초일류 기업들이 포진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프랑스 금융사 A사는 당당히 43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천 개 보험사 중 단 두 곳뿐인 자리입니다.

## 왜 글로벌 브랜드 순위가 내 자산의 안전장치가 될까요?

그들이 보유한 브랜드 가치만 해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만약 이들이 고객과의 배당 약속을 어기거나 지급을 미루는 순간, 그들이 200년간 쌓아온 수십조 원짜리 브랜드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물거품이 됩니다.

해외금융연구소

> **"이름값이 높다는 것은, 나를 속일 이유보다 약속을 지켰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큰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 4 말 대신 숫자로 증명하는 신뢰, '이행률'과 '지급여력비율'

신뢰는 화려한 말이나 광고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거창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지난 수십 년간 지켜왔는지는 오직 '냉정한 숫자'로만 증명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금융당국이 공시하는 2가지 핵심 지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 첫째, 배당 지급이행률(Fulfillment Ratio)

> **처음 가입할 때 약속했던 배당을 실제로 몇 %나 지급했는가?**

TOTAL VALUE RATIOS | FULFILMENT RATIOS

**For Reporting Year 2024**

The following fulfilment ratios are for reference only. They relate to past history and are not indicators of future performance of participating plans. The actual non-guaranteed benefits declared in the future may be lower or higher than the amounts implied by the published fulfilment ratios in this page.

| | Policy Year 1 (2023) | Policy Year 2 (2022) | Policy Year 3 (2021) | Policy Year 4 (2020) | Policy Year 5 (2019) | Policy Year 6 (2018) | Policy Year 7 (2017) | Policy Year 8 (2016) | Policy Year 9 (2015) | Policy Year 10 (2014) | Policy Year 10+ (2013 or before) |
|---|---|---|---|---|---|---|---|---|---|---|---|
| **USD Policy Currency – Reversionary Bonus** | Not Applicable (a) | | 100% | 100% | 100% | 100% | Not Applicable (d) | | | | |
| **USD Policy Currency – Terminal Bonus** | Not Applicable (a) | | 101% | 104% | 105% | Not Applicable (b) | Not Applicable (d) | | | | |

프랑스 A사 배당 이행률 공시자료 (붉은 박스: 실제 지급 이행률)

Fulfillment ratios for reversionary bonuses for reporting year 2024 are as follows:

| Product Series | Product Type | Policy Currency | Fulfillment ratios for reversionary bonuses for reporting year 2024 | | | | | | | | | | |
|---|---|---|---|---|---|---|---|---|---|---|---|---|---|
| | | | Policy Year 1 | Policy Year 2 | Policy Year 3 | Policy Year 4 | Policy Year 5 | Policy Year 6 | Policy Year 7 | Policy Year 8 | Policy Year 9 | Policy Year 10 | Policy Year 10+ |
| [redacted] Insurance Plan® | Participating Whole Life | US$ | N/A | N/A | 100% | 100% | 100% | 100% | N/A | N/A | N/A | N/A | N/A |

미국 C사 배당 이행률 공시자료 (붉은 박스: 실제 지급 이행률)

해외금융연구소

**Qualifying Deferred Annuity Policy**
**合資格延期年金保單**

| 產品系列 Product Series | 紅利類別 Dividend Type | 貨幣 Currency | 2024 [redacted] Fulfillment ratios for reporting year 2024 | | | | | | | | | | |
|---|---|---|---|---|---|---|---|---|---|---|---|---|---|
| | | | 第 1 個保單年度 (2023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1 (Policies Effective in 2023) | 第 2 個保單年度 (2022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2 (Policies Effective in 2022) | 第 3 個保單年度 (2021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3 (Policies Effective in 2021) | 第 4 個保單年度 (2020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4 (Policies Effective in 2020) | 第 5 個保單年度 (2019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5 (Policies Effective in 2019) | 第 6 個保單年度 (2018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6 (Policies Effective in 2018) | 第 7 個保單年度 (2017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7 (Policies Effective in 2017) | 第 8 個保單年度 (2016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8 (Policies Effective in 2016) | 第 9 個保單年度 (2015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9 (Policies Effective in 2015) | 第 10 個保單年度 (2014 年生效的保單) Policy Year 10 (Policies Effective in 2014) | 第 10+個保單年度 (2014 年前生效的保單) Policy Year 10+ (Policies Effective before 2014) |
| 豐盛稅悅保延期年金 [redacted] Annuity | 終期紅利 Terminal Dividend | 全部 All | 不適用 N/A | 104% | 102% | 尚未推出 Not yet launched | 尚未推出 Not yet launched | 尚未推出 Not yet launched | 尚未推出 Not yet launched | 尚未推出 Not yet launched | 尚未推出 Not yet launched | 尚未推出 Not yet launched | 尚未推出 Not yet launched |

이탈리아 G사 배당 이행률 공시자료 (붉은 박스: 실제 지급 이행률)

이것은 금융사가 임의로 꾸며낼 수 없는 숫자입니다. 금융 선진국 홍콩의 금융관리국(IA)은 모든 보험사가 과거 고객에게 제시했던 '예시 배당'과 '실제 지급한 배당'을 매년 1% 단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 100% 미만 | 100% 달성 |
| --- | --- |
| **처음 약속보다 덜 지급** | **약속한 배당 전액 지급** |

제가 검증한 프랑스 A사, 미국 C사, 이탈리아 G사는 대부분의 플랜에서 약속한 배당을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강력한 것은 바로 이 '수십 년간 지켜온 배당 이행의 기록'입니다.

## 둘째, 지급여력비율(Solvency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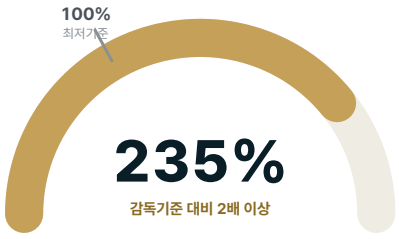
> **세상이 흔들려도, 내 돈을 돌려줄 기초 체력이 있는가?**

해외금융연구소

INFOGRAPHIC 06

### 지급여력비율 — 감독당국 요구 기준의 2배 이상

미국 C사 홍콩법인 · 2024년 말 · 홍콩 감독당국 공시 기준




| | |
| --- | --- |
| 미국 C사 홍콩법인 | 235% |
| 홍콩 생보업계 평균 (상위 10개사) | 230% |
| 감독당국 최저 요구 기준 | 100% |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을 **이미 전액 별도로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여유 자본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최저 기준선은 100%인데, 미국 C사의 홍콩법인은 **235%** — 요구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여유 자본을 별도로 쌓아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콩 상위 10개 생명보험사 평균(230%)과 비교해도 평균 이상입니다.

※ 홍콩보험감독국 위험기준 자기자본(HKRBC) 제도 기준, 2024년 말 공시 · 업계 평균은 Milliman 2024년 말 분석

지급여력비율이 높다는 것은, 설령 대공황이나 전쟁, 금융위기 같은 최악의 상황이 닥쳐 자산 가치가 흔들리더라도 고객에게 약속한 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여유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금융사의 '체력 검진표'입니다.

> **저는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조작할 수 없는 '숫자의 이력'을 믿기로 했습니다.**

배당을 성실히 지켜온 이행률, 그리고 위기 앞에서도 끄떡없는 높은 지급여력. 이 단단한 숫자들을 확인한 순간, 비로소 망설임은 끝났고 확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제 자산이 불어나고 있는 곳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이처럼 숫자로 증명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견고한 약속 위입니다.

## 5 글로벌 3대 평가사가 공인한 '국제 신용등급'

제가 마지막으로 검증한 관문은 바로 '글로벌 3대 신용평가기관의 공식 신용등급'이었습니다.

S&P · Moody's · Fitch

**전 세계 국가·금융기관 신용도를 평가하는 세계 3대 기관**

A.M. Best (1899년 설립)

**전 세계 보험사만을 전문 평가하는 최고 권위 기관**

해외금융연구소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엄격하고 깐깐한 기관들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위기 대응력, 고객 약속 이행 능력을 현미경 검증하여 매기는 성적표입니다.

##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은 먼저 개인의 신용점수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원리금을 연체 없이 잘 갚았는가?" "위기가 와도 갚아낼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있는가?" 기업의 국제 신용등급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 구분 | S&P | Moody's | Fitch | AM Best |
|---|---|---|---|---|
| **미국 C사**<br>그룹 주요 보험 자회사 기준 | **AA** | **Aa2** | **AA** | **A++** |

※ 지주회사 및 홍콩 생명법인 등 계열사별로 등급이 다르게 부여되며, 위 등급은 그룹 주요 손해보험 자회사 기준입니다.

##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폭등하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등급도 가장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S&P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FT)와 존슨앤존슨(JNJ) 단 2곳뿐**입니다. 심지어 기축통화 발행국인 미국 정부조차 국가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사의 신용등급은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인 **아마존(Amazon), 엔비디아(NVIDIA)와 동일한 'AA' 등급**입니다. 애플(AA+)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주식 시장의 화려한 테마가 아니라 수십 년 뒤에도 약속한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전 세계 최정점의 초우량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한 순간, 제 마음속의 마지막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 **"아, 이 정도의 글로벌 신용도라면 회사의 지급 불능(디폴트) 리스크는 국가 부도 확률보다 낮겠구나.**
> **"내 10년, 20년 뒤 은퇴 자금과 내 아이의 미래를 안심하고 묻어둘 수 있겠구나.**

해외금융연구소

## [요약] 안전한 글로벌 금융사를 걸러내는 5대 절대 필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기준은 단순히 "어디가 좋다더라"는 식의 풍문이 아닙니다. 수백 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사 중에서 내 피 같은 돈을 맡겨도 될 '단 1%의 초우량 금융사'를 가려내는 절대적인 검증 필터입니다.

① **200년 이상의 생존 역사** — 1·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위기관리 능력

② **1,000조 원대 이상의 압도적 자산운용 규모** — 초우량 자산에 분산투자하여 연 6~7% 배당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엔진

③ **글로벌 100대 브랜드 파워** — 고객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도록 옭아매는 가장 비싼 신뢰의 담보

④ **성실한 배당이행률과 감독기준의 2배가 넘는 지급여력** — 말이 아닌 숫자로 증명된 약속 이행 기록과 파산 걱정 없는 현금 체력

⑤ **글로벌 최상위 국제 신용등급(AA 등급)** — 아마존·엔비디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객관적인 재정 건전성 공인

저는 이 깐깐한 5대 필터를 통과한 곳에 제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맡겼습니다. 복리 배당 시스템의 기적은 상품 구조 하나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100년 넘게 일관되게 지켜온 '압도적인 금융사'가 뒤를 받쳐주고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 5가지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글로벌 금융사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로,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장(시크릿 #3)에서 방구석에서 끝내는 세팅법을 공개합니다.

SECRET 03

# 비행기 표도, 영어도 필요없다! 방구석에서 끝내는 세팅법

수익률과 안정성을 확인한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 "영어를 원어민처럼 잘해야 하나요?", "직접 홍콩에 가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역시 100% 토종 한국인이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처음에는 '이건 해외 출장이 잦은 대기업 임원이나 고액 자산가들만의 세상이겠구나'라고 넘겨짚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파고들면서 알게 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이 안방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완벽하게 시작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 '한국어 원스톱 시스템'이 빈틈없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 언어와 출국 장벽을 없앤 '한국어 컨시어지 시스템'

직접 해외 본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는 한국 고객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한국어 전문 서비스 데스크(컨시어지)'와 전문 인프라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 영어를 몰라도 한국어 직구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집 앞까지 배송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1. 복잡한 영문 서류를 한국어로 알기 쉽게 안내
2. 여권 사본 및 자금출처 등 필수 행정서류 검토 및 번역 지원
3. 비대면 심사 승인부터 본사 모바일 계정 발급까지 전 과정 동행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이후 복잡한 글로벌 전산 등록과 행정 절차는 공인된 전문 시스템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해외투자연구소

PROCESS

### 안방에서 끝내는 3단계 비대면 원스톱 프로세스

1 **맞춤 플랜 설계 및 자필 서명**

한국어 전담 매니저의 1:1 안내를 받아 청약 서류를 본인이 직접 출력, 확인 후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등 기본 서류 체크)

2 **국제 안전 특송 발송 및 본사 심사**

자필 서명된 정식 원본 서류를 국제 특송(DHL 등)으로 홍콩 본사에 안전하게 발송,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3 **본사 모바일 계정 발급 및 실시간 관리**

심사 승인 및 증서 발행 후, 본사 공식 모바일 포털/앱에서 배당금과 자산 현황을 24시간 실시간 확인

> 대한민국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명시한 '우편 및 통신에 의한 정식 계약 체결' 절차입니다. 사후 관리 역시 배당금 인출, 주소 변경, 수익자 지정 등 모든 행정 업무를 한국어 전담 창구를 통해 국내 금융사처럼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연구소

## 실제 경험담: 현지 본사에서 마주한 반가운 진실

코로나 규제가 풀린 직후, 홍콩의 글로벌 금융사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해 준 담당 직원은 놀랍게도 한국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와 고향까지 같은 분이었죠.

언어의 장벽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미 한국인 고객의 비중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본사 차원에서도 완벽한 한국어 지원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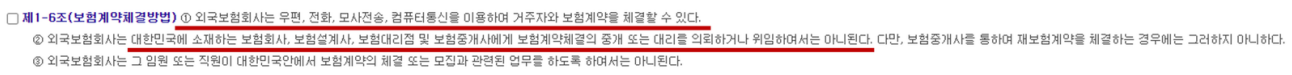
## 자산 디자이너의 솔직한 제안: 현지 방문 vs 비대면 청약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직접 비행기를 타고 홍콩 현지 본사에 방문하여 청약하는 것'입니다. 휴가나 여행 겸 2박 3일 일정으로 홍콩에 방문하여 수백조 원 규모를 굴리는 본사 빌딩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VIP 고객 라운지에서 전문 한국인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대면으로 완벽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이것이 가장 확실한 1순위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쁜 직장인이나 사업가,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도저히 해외로 출국할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똑같은 글로벌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비대면 청약 시스템'입니다.

## "한국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 100% 합법인가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법전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 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제1항

> **보험업감독규정 제1-6조 제1항**
>
> "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해외금융연구소

법 조항에 명시된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국내 거주자가 우편,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해외 정식 인가 금융사의 플랜에 가입하는 행위를 '합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토록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제도가 합법인데, 왜 우리 주변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외국 금융플랜은 국내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와 공개 마케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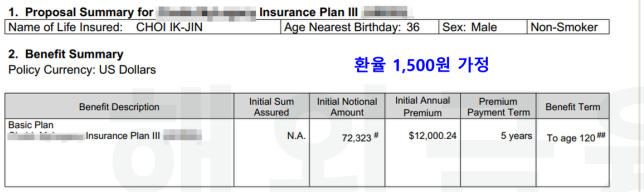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의 압도적인 금융플랜이 TV, 신문, 유튜브 등에 대대적으로 광고될 경우, 국내 은행과 보험사에서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금융사 타격과 외화 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이라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국내 금융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장벽 때문에 대중 광고가 차단되어 있었고, 그 결과 정보에 빠른 소수 자산가들만 알음알음 본인들의 자산을 달러 복리 시스템으로 이동시켜 왔던 것입니다.

## 결론: 이제 당신의 머니트리를 심을 차례입니다

결국, 언어의 장벽도, 비행기를 타야 하는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국 고객을 전담하는 서비스 데스크, 1:1 전담 매니저, 대한민국 법률이 보장하는 비대면 우편 청약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사후 관리까지 모든 인프라가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명확한 팩트를 확인한 후 주저 없이 실행했고, 현재 제 가족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글로벌 복리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축하여 굴려가고 있습니다.



1. Proposal Summary for [redacted] Insurance Plan III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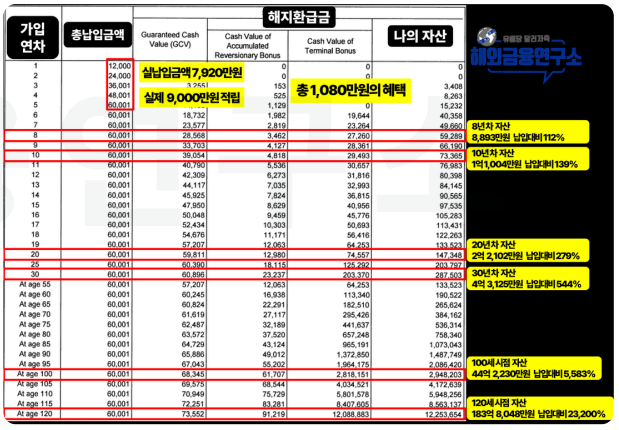
| Name of Life Insured: CHOI IK-JIN | Age Nearest Birthday: 36 | Sex: Male | Non-Smoker |
|---|---|---|---|

2. Benefit Summary
Policy Currency: US Dollars

환율 1,500원 가정

| Benefit Description | Initial Sum Assured | Initial Notional Amount | Initial Annual Premium | Premium Payment Term | Benefit Term |
|---|---|---|---|---|---|
| Basic Plan<br>[redacted] Insurance Plan III [redacted] | N.A. | 72,323 # | $12,000.24 | 5 years | To age 120 ## |

실제 가입 설계표 1



| 가입 연차 | 총납입금액 | 해지환급금 Guaranteed Cash Value (GCV) | 해지환급금 Cash Value of Accumulated Reversionary Bonus | 해지환급금 Cash Value of Terminal Bonus | 나의 자산 |
|---|---|---|---|---|---|
| 1 | 12,000 | | 0 | 0 | 0 |
| 2 | 24,000 | | 0 | 0 | 0 |
| 3 | 36,001 | 3,660 | 153 | | 3,403 |
| 4 | 48,001 | | 525 | | 8,263 |
| 5 | 60,001 | | 1,129 | 0 | 15,232 |
| 6 | 60,001 | 18,732 | 1,982 | 19,644 | 40,358 |
| 7 | 60,001 | 23,577 | 2,819 | 23,264 | 49,660 |
| 8 | 60,001 | 28,568 | 3,462 | 27,260 | 59,289 |
| 9 | 60,001 | 33,703 | 4,127 | 28,361 | 66,190 |
| 10 | 60,001 | 39,054 | 4,818 | 29,493 | 73,365 |
| 11 | 60,001 | 40,790 | 5,536 | 30,657 | 76,983 |
| 12 | 60,001 | 42,309 | 6,273 | 31,816 | 80,398 |
| 13 | 60,001 | 44,117 | 7,035 | 32,993 | 84,145 |
| 14 | 60,001 | 45,925 | 7,824 | 36,815 | 90,565 |
| 15 | 60,001 | 47,950 | 8,629 | 40,956 | 97,535 |
| 16 | 60,001 | 50,048 | 9,459 | 45,776 | 105,283 |
| 17 | 60,001 | 52,434 | 10,303 | 50,693 | 113,431 |
| 18 | 60,001 | 54,676 | 11,171 | 56,416 | 122,263 |
| 19 | 60,001 | 57,207 | 12,063 | 64,253 | 133,523 |
| 20 | 60,001 | 59,811 | 12,980 | 74,557 | 147,348 |
| 25 | 60,001 | 60,390 | 18,115 | 125,292 | 203,797 |
| 30 | 60,001 | 60,896 | 23,237 | 203,370 | 287,503 |
| At age 55 | 60,001 | 57,207 | 12,063 | 64,253 | 133,523 |
| At age 60 | 60,001 | 60,245 | 16,938 | 113,340 | 190,522 |
| At age 65 | 60,001 | 60,824 | 22,291 | 182,510 | 265,624 |
| At age 70 | 60,001 | 61,619 | 27,117 | 295,426 | 384,162 |
| At age 75 | 60,001 | 62,487 | 32,189 | 441,637 | 536,314 |
| At age 80 | 60,001 | 63,572 | 37,520 | 657,248 | 758,340 |
| At age 85 | 60,001 | 64,729 | 43,124 | 965,191 | 1,073,043 |
| At age 90 | 60,001 | 65,886 | 49,012 | 1,372,850 | 1,487,749 |
| At age 95 | 60,001 | 67,043 | 55,202 | 1,964,175 | 2,086,420 |
| At age 100 | 60,001 | 68,345 | 61,707 | 2,818,151 | 2,948,203 |
| At age 105 | 60,001 | 69,575 | 68,544 | 4,034,521 | 4,172,639 |
| At age 110 | 60,001 | 70,949 | 75,729 | 5,801,578 | 5,948,256 |
| At age 115 | 60,001 | 72,251 | 83,281 | 8,407,605 | 8,563,137 |
| At age 120 | 60,001 | 73,552 | 91,219 | 12,088,883 | 12,253,654 |

실납입금액 7,920만원
실제 9,000만원 적립
총 1,080만원의 혜택

해외금융연구소

8년차 자산
8,893만원 납입대비 112%

10년차 자산
1억 1,004만원 납입대비 139%

20년차 자산
2억 2,102만원 납입대비 279%

30년차 자산
4억 3,125만원 납입대비 544%

100세시점 자산
44억 2,230만원 납입대비 5,583%

120세시점 자산
183억 8,048만원 납입대비 23,200%

실제 가입 설계표 2

1. 연 복리 6~7% 배당형 유배당 저축
2. 전 세계 어디서나 보장받는 무제한 진단비 유배당 건강 플랜
3. 납입 즉시 최대 5% 보너스를 얹어주는 월 적립식 글로벌 펀드
4. 하락장에서도 원금을 100% 지켜주는 원금보장형 S&P500 인덱스 플랜
5. 하락 시 적립금의 50~80%까지 하방을 보호해주는 적립식 펀드
6. 최저 3.5%를 보증하며 최대 6%대 이자를 쌓아주는 확정 복리 저축

## 지금까지 공개한 3가지 핵심 시크릿 요약

① 한국에선 사라졌지만, 글로벌 시장엔 여전히 살아 있는 **'연 6~7% 복리 배당 시스템'**

② 200년 역사, 1,000조 원대 자산, 브랜드 파워, 감독기준의 2배가 넘는 지급여력, AA 신용등급의 **'5대 검증 필터'**

③ 비행기 표도, 영어도 필요 없이 안방에서 합법적으로 끝내는 **'우편 비대면 원스톱 프로세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지난 세월 내 자산이 왜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걸음이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명확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내 통장에는 단 1원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을 덮고 다시 은행 예·적금에 돈을 묶어두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내 자산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릴 뿐입니다.

해외금융연구소

**1. 제자리걸음**

-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2% 대 이자에 만족하며, 불안한 노후를 맞이할 것인가?

**2. 글로벌 복리 시스템**

- 자산가들이 100년 넘게 검증해 온 글로벌 달러 복리 시스템에 내 자산을 태울 것인가?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 60초 자가진단: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분

아래 6가지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 보세요.

- ☐ 은행 예·적금 외에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 증식 대안을 찾고 있다
- ☐ 매일 주식 창을 들여다보고 차트 매매하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 [ ] 내 돈이 세계 1위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USD)로 매년 연 6~7%씩 불어나길 원한다
- [ ] 은퇴 후 든든한 평생 연금과 내 아이에게 합법적으로 물려줄 종잣돈이 필요하다
- [ ] 영어를 잘 못하고, 해외에 직접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
- [ ]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돈을 버는 '자동 복리 머니트리'를 만들고 싶다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며 시간을 흘려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눈덩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 실제 출간 도서에 실린 고객 인터뷰

저의 출간 도서 『한국인의 금융 엑시트』에 수록된 인터뷰 원문입니다. 저와 함께 글로벌 복리 플랜을 실행 중인 **이O은님 부부 (30대 중반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책 내지 그대로 옮깁니다.

해외금융연구소

이O은님 부부 (30대 중반 신혼부부)

**Q1. 저축을 현재 월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축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A. 월 100~110만 원 정도 저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저축해온 지는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Q2. 달러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저축을 해오셨나요?**

A. 주로 은행의 단기 적금과 예금에만 저축했고 남편은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해지했고 연 복리 7%로 굴러가는 유배당 저축 플랜에 가입했고요.

**Q3. 다양한 저축 및 투자 방식이 있는데, 글로벌 금융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그 당시 제 주변에서 투자하려면 ETF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ETF도 투자 상품이다 보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그때 마침 똑같은 유형의 투자 상품인데 내 원금과 수익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장치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알면 알수록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국내에서 제공하는 저축상품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 운용 방식이나 수익률에서 더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Q4. 한국에서는 접해보기 힘든 기능과 익숙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불안하거나 의심이 들진 않으셨나요?**

A.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 같아요. 남편과 같이 시작했는데 남편은 가입하고 나서도 계속 사기 아니냐고 불안해했어요. 하마터면 그 불안감이 저한테도 옮을 뻔했죠.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 상품을 추천해주신 담당자님에게 연락했어요. 제 경우엔 좋은 상품보다는 그 상품을

해외금융연구소

권유하고 판매하는 담당자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담당자님은 제 경험상 정직하고 솔직한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권유해 주시는 상품이면 무조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Q5. 가입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상품을 소개해보셨나요? 소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글로벌 금융상품은 금융 지식이 있거나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경우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먼저 소개는 많이 못해 봤어요. 다만 주변에서 먼저 "너 저축 어떤 거 해? 투자는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소개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수익률 때문에 놀라는 게 절반,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게 절반 같아요. 한번은 증권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인과 주식, ETF 등 투자에 대해 이야길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달러 저축상품과 현재 수익률을 말해줬더니 그런 상품이 어디 있냐며 나를 마치 사기당한 사람처럼 취급하더군요. 순간 억울하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당자님을 통해 현재 가입현황과 수익률 구조에 대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제 말을 믿더군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달러 저축에 관심 있는 지인에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 담당자님을 연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Q6. 현재 배우자님과 함께 달러 저축을 해오고 있는데 수익률은 만족하시나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비슷한 수익을 얻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A. 솔직히 국내에 있는 다른 저축상품에 같은 금액을 넣었다면 지금의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현재의 수익률에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반적금 만기이자 정도를 기대해본 적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크지 않더라고요. 내 돈이 그대로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다는 안도감 그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달러 저축 방식은 내 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안도감과 수익까지 경험할 수 있어서 만족스럽네요.

**Q7. 아직 이 시장을 모르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해외금융연구소

A. 생업이 바쁘고 힘들어도 어차피 버는 돈이고 기왕 저축하는 돈이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원금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일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타로 치고 빠지는 주식이나 코인 빗투처럼 너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해진 기간동안 진득하게 투자하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불어나 있는 나의 자산을 확인하고 더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도 생기시길 바랄게요!

출처: 『한국인의 금융 엑시트』(최익진 저) 본문 중

## 그 외 함께 실행 중인 분들이 남겨주신 후기

도서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저와 함께 플랜을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더 많은 인터뷰는 **offshorefinancelab.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에 12년 부은 개인연금 환급률표를 떼어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원금에서 고작 몇백만 원 붙어있더군요. 서류에 직접 자필 사인해서 홍콩으로 보낼 때 비로소 '진짜 정식 계약이구나' 실감 났습니다."

**— 30대 IT기업 직장인 오*영님**

"처음엔 유튜브에서 보던 사기 수법 아닌가 싶어 밤새 구글링하고 금감원 규정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가입하신 분들께 직접 연락해서 전부 다 물어보고 가입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빨리 가입했어도 좋았을 거 같아요."

**— 30대 자영업 한*민님**

"프리랜서라 매달 고정 수입이 불규칙합니다. '딱 5년만 모아서 넣고 잊고 살면 평생 복리로 굴러간다'는 구조가 제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매년 집으로 날아오는 본사 공식 영문 보고서를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 40대 전문직 김*환님**

"부동산은 상속세·증여세 때문에 자녀들에게 넘겨주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피보험자를 아이들 명의로 변경해서 통째로 넘겨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큰아이, 둘째 아이 앞으로 5년 플랜을 각각 하나씩 만들어 주었습니다."

**— 50대 제조업 대표 나*권님**

해외금융연구소

## 가장 많이 묻는 4가지 질문 (FAQ)

### Q1 해외 금융사인데, 진짜로 안전한 게 맞나요?

당연히 드는 불안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의심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숫자를 보십시오. S&P 신용등급 AA(아마존·엔비디아와 동일),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의 2배가 넘는 수준, 100년 넘게 배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온 이력. 대한민국 어떤 금융사보다 객관적인 재무 지표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 Q2 최소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무리하게 큰돈으로 시작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배당형 저축·월 적립식 플랜 모두 월 30만 원대로 시작이 가능하며, 목돈을 한 번에 묻어두는 일시납 플랜까지 본인 상황에 맞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일찍 복리의 엔진을 켜는가'입니다.

### Q3 혹시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1~2년 뒤에 써야 할 단기 자금이라면 절대 이 플랜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글로벌 복리 플랜은 최소 5년 이상 묵혀둘 때 폭발적인 복리 효과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입 초기(1~3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유 자금 범위 내에서 플랜을 짜야 합니다.

---

### Q4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약이 완료되면 추후 본사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자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한국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서도 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 인출, 주소 변경, 수익자 지정 등 계약 후 발생하는 행정 업무 또한 한국어 전담 지원 창구를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 11년 차 금융인으로서 밝히는 사전 유의사항

신뢰는 장점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유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만들어집니다.

해외금융연구소

**⚠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 **환율 변동성** — 달러 자산이므로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강력한 헷지 수단이 됩니다.)
- ✔ **배당구조의 이해** — 확정금리형 플랜과 배당형 플랜의 차이를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설계표의 높은 숫자는 회사 보증분과 운용 성과에 따른 배당분이 합산된 값입니다.
- ✔ **원금/수익 보장 여부** — 일부 상품은 원금·수익 보장 여부가 상품별로 구분됩니다.
- ✔ **해외 금융자산 신고** — 거주자 기준에 맞춘 합법적 세무 및 외환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연결해 드립니다.

CONSULTING

# 1:1 맞춤 프라이빗 컨설팅 신청 안내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입문서'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나이, 내 소득, 내 가족 상황에 가장 최적화된 회사는 어디이며, 몇 년 납입 플랜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1:1 맞춤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께는 다음 내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1. 내 재무 상황에 100% 최적화된 글로벌 금융사 2~3곳 비교 분석표
2. 5년/10년/20년/30년 차 실제 예상 배당금 및 환급률 정밀 시뮬레이션 리포트
3. 비대면 우편 청약 및 현지 방문 청약 맞춤형 가이드라인
4. 환율 변동 및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산 배분 전략

## 독자 한정 특별 감사 선물

해외 금융 연구소

*"바닥을 먼저 다져야, 복리 사다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 해외 복리 시스템은 국내 제도를 빈틈없이 다 챙긴 다음 얹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혜택 1 · 바닥 다지기: 국내 제도 완벽 방어**

**대한민국 4대 연금 & 4대 보험 핵심 절세·수령 가이드북 PDF**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수령 전략 및 직장인/사업자 4대 보험 절감 실전 노하우 총정리)

**혜택 2 · 초호화 2종 패키지**

① **스마트 월간 현금흐름표(엑셀)** + **해외금융연구소 3대 재정 진단 대시보드(HTML)**
② **해외금융 팩트체크 Q&A 20선** & **글로벌 금융사 5분 핵심 요약집(PDF)**

## 5줄 진정성 후기 남기고 선물 받기

1. **책을 읽기 전, 내 연금이나 노후 준비(예·적금, 국내 보험)에서 가장 답답하거나 불안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2. **책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이었거나 기존 금융 상식이 깨졌던 부분(유배당의 실체, 복리 구조 등)은 무엇인가요?**
3. **이 책을 읽고 난 뒤,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하거나 바꿔보고 싶은 계획은 무엇인가요?**

위 세 가지를 바탕으로 5줄 이상의 솔직한 완독 후기를 공식 채널로 남겨주시면, 확인 즉시 혜택 패키지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joo.is/전자책리뷰쓰기**

해외금융연구소

## 프라이빗 1:1 재정진단 & 평생 인출플랜 컨설팅

책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상위 1%의 안목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금융 상품은 기성복이 아닙니다. 내 소득, 가족 구성, 은퇴 시점, 자녀 계획에 따라 최적의 배분 비율과 인출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별히 이 전자책을 읽고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1:1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을 진행합니다.

### 1:1 컨설팅 시 단독 제공 혜택

① 개인 맞춤 5년 / 10년 / 20년 / 30년 배당금·환급률 정밀 시뮬레이션 리포트

② 은퇴 후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목적별 평생 분할 인출 플랜' 1:1 포트폴리오

③ 국내외 자산 리밸런싱 및 합법적 절세 최적화 로드맵 제공

### ⚠ 안내: 월 정원 제한

제가 데이터 검증부터 시뮬레이션 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100%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월 20건 이상은 일정을 잡지 못합니다. 아래 사전 재정 진단지를 작성해 주시면 데이터를 분석한 후 순차적으로 상담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책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의 작은 선택이, 1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1:1 맞춤 컨설팅 사전 진단지 작성하기 → joo.is/맞춤정밀진단**

해외금융연구소